

일제강점기 영천의 독립전쟁 전통과 군사시설*

김 윤 미**

- I. 머리말
- II. 일본의 군사강점과 영천의 독립전쟁
- III. 영천에 주둔한 일본군과 군사시설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영천의 근대사를 전쟁과 군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립을 향한 전통은 독립운동사의 관점을 넘어 군사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독립전쟁의 전통이라 할 것이다. 전근대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군사강점에 맞서 싸운 군사활동은 국군의 역사차원에서 포괄적인 운동사의 관점보다 의병전쟁에서 독립전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쟁은 다양한 군사시설을 포함한 군사흔적을 해당 지역에 남기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북 영천에 주목했다.

본문에서는 먼저 영천의 의병전쟁과 독립운동의 전개를 살펴보았다. 경북의 여타 지역과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던 영천은 다른 지역과 연대

* 이 글은 영천시에서 주최한 ‘영천 군사역사 학술포럼’(2022.12.22.)에서 발표한 원고를 대폭 수정 보완하였다.

**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하여 을미의병과 정미의병을 일으켰다.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일으킨 의병전쟁은 이후 3·1독립운동, 일본·만주·중국 등 국내외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군사활동을 검토했다. 일본은 한국주차군 제14연대와 한국주차헌병대를 영천에 파견하여 의병의 활동을 막았고, 식민지가 된 한반도에 일본군 2개 사단을 상주시켰다. 대구에 본부를 둔 일본 육군 보병 제80연대의 영향 아래 있었던 영천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금호에 영천비행장을 건설하고 항공부대를 주둔시켰다. 영천의 주요 지점에는 고사포를 설치하고 부대를 편성했으며, 일본군이 주둔하고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헌병대도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군사시설은 현재까지 남아있다.

◆ 주제어

독립운동, 의병전쟁, 의병운동, 을미의병, 정미의병, 산남의진, 대구, 경상북도, 영천비행장, 일본 헌병대, 조선 주둔 일본군, 아시아태평양전쟁.

I. 머리말

한국근대사에서 독립운동의 주요 지역이라하면 경상북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인물과 지역적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전쟁의 전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¹⁾ 독립을 향한 전통은 독립운동사의 관점을 넘어 군사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독립전쟁의 전통이라 할 것이다. 전 근대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군사강점에 맞서 싸운 군사활동은 국군의 역사차원에서 포괄적인 운동사의 관점보다 의병전쟁에서 독립전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 또한 전쟁은 다양한 군사시설을 포함한 군사흔적을 해당 지역에 남기게 된다. 한국 근대사에서 일본의 군사강점은 매우 치밀하게 전개되어 국권상실의 아픈 기억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사 관점에서 독립전쟁사는 시기별로 주체와 전개 방식의 차이를 가지며 그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북 영천에 주목하고자 한다.

경북의 동남부에 위치한 영천은 전통적으로 동쪽의 경주, 포항, 서쪽의 경산, 대구, 남쪽의 청도, 북쪽의 청송, 군위와 인접한 교통의 요지였다. 교통의 요지란 이곳을 경유하는 길이 존재하여 험준한 산악을 피하고, 물길을 인접하였다는 의미이다. 영천은 태백산맥의 한 줄기인 보현

1) 안동독립운동기념관, 『대구·경북 독립운동사적지 I·II(국내 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 사보고서 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이를 반영하듯이 전국 최초로 지역차원에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한 경상북도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의 유구한 전통이 있다. 2002년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기하여 2007년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고, 2014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으로 승격하여 2017년 기념관을 개관했다.(출처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홈페이지 : 2023.8.1. 검색)

2) 조동걸, 「민족군사의 원류의식」, 『군사』 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2, 14~23쪽. 저자는 민족이 주체가 되는 軍史를 민족군사로 정의하고, 대한제국군과 의병, 독립군의 변천 등을 연계성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제의 군사강점에 대응하여 의병, 독립군, 의사, 의용군, 광복군 등 다양한 이름으로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간 장기간 독립전쟁이 전개되었다고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의병전쟁기(1895~1910), 독립군기지개척기(1910~1919), 독립전쟁발전기(1919~1933), 독립군정비기(1933~1938), 광복전쟁기(1938~1945) 등으로 구분하였다.

산을 가운데로 보현산, 팔공산, 운주산, 사룡산에 둘러싸인 등근 분지 지형으로, 2개의 강줄기를 따라 적지 않은 평지가 조성된 지역이다. 영천의 지역사 연구는 주로 고대사의 유적³⁾과 정몽주 등 인물연구에⁴⁾ 집중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영천이 가지는 지리적 특징과 연관된 군사역사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임진전쟁을 중심으로 한다.⁵⁾

영천의 지리적 특성은 군사거점이 되었다. 교통의 요지이자 넓은 평야는 일제강점기 의병에게도, 침략자였던 일본에게도 중요한 요소였다. 경북의 여타 지역과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던 영천은 다른 지역과 연대할 수 있는 의병과 정미의병의 전쟁공간이 되었다.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일으킨 의병전쟁은 3·1운동으로 이어졌다. 영천 출신의 많은 사람들은 1920년대 1930년대에 국내는 물론 만주와 일본 등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성과들을 참고하겠다.⁶⁾

영천의 의병전쟁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사료로 『山南義陣遺史』가 전해진다.⁷⁾ 산남의진을 검토하는데 주요한 기록이다.⁸⁾ 의병을 탄압했던 일본군의 전투기록 중 일본군 제14연대의 『진중일지』⁹⁾, 『전투상보』

-
- 3) 이미란, 「8세기 후반 동아시아 役制 변화를 통해 본 영천청제비 정원명의 法功夫」, 『한국고대사연구』 95, 한국고대사학회, 2019 등.
 - 4) 김학수, 「17세기 초반 영천유림(永川儒林)의 학맥(學脈)과 장현광(張顯光)의 임고서원(臨臯書院) 제향논쟁(祭享論爭)」, 『조선시대사학보』 35, 조선시대사학회, 2005 등.
 - 5) 김경록,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북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군사』 11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0 등.
 - 6)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경북독립운동사Ⅲ(3·1운동)』, 경상북도, 2013;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안동독립운동기념관, 『경북독립운동사Ⅳ(국외지역 항일투쟁)』, 경상북도, 2013; 이성우, 「滄旻 張鎭弘의 생애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의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1920년대 이육사의 국내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손경희, 「일제시기 경상북도 영천군의 금호수리조합과 일본인 농업경영」, 『대구사학』 135, 대구사학회, 2019.
 - 7) 山南義陣遺史刊行委員會, 『山南義陣遺史』, 1970년.
 - 8) 배용일, 「山南義陳考-정환직·정용기 부자 의병장 활동을 중심으로」, 『포항실업전문대 논문집』 6, 포항실업전문대, 1982. 참고
 - 9) 김상기 편저, 『보병제14연대 진중일지』 I~Ⅲ, 토지주택박물관, 2010.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는 후기 의병기인 1907년 이후 주로 영남, 호남지역 의병 탄압에 참여한

도¹⁰⁾ 남아있어 참고가 된다. 전쟁유적에 관해서는 문화재청,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조사 결과물이 있다.¹¹⁾ 영천에도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주둔하며 남긴 군사시설이 있다. 대표적으로 ‘영천비행장 격납고’다.¹²⁾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¹³⁾ 침략자였던 일본군이 영천을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군사사의 관점에서 영천의 근대사를 정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의병전쟁이 있었던 영천에는 그 현장이 남아있고, 일본군이 구축한 군사시설도 현존한다. 청일전쟁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비교적 긴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분명 자료 등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연구를 시작한 것은 영천의 근대사를 규명하여 지역사의 기반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자료 발굴과 연구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보병 제14연대에서 작성한 일지다. 총 14권으로 되어 있으며 1907년 7월 23일 동원령을 받은 날부터 1909년 6월 19일 부대 복귀까지 2년간의 기록이다. 『진중일지』 원본은 각 부대에서 보관하고 부분을 육군성에 보내며, 육군성에서는 이 중 필요한 사항을 초록하여 보관하고 기타는 참모본부에 보내 육군문고에 보관시켰다.(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6~7쪽 참고)

- 10) 1907년 9월~1909년 7월에 작성된 『전투상보』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 의병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1년간의 기록이다. (김영숙 편역, 『한반도주둔일본군 사료총서 ② 군대 해산과 한국주차군의 독립운동 탄압』, 역사공간, 2020. 참고)
- 11) 문화재청, 『태평양 전쟁유적(부산, 경남, 전남 지역) 일제조사 연구용역』, 2013 ;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강제동원의 역사와 현장:서부경남편』, 2017.
- 12) 『영남일보』, 2018년 5월 14일자, 「태평양전쟁 유적 문화재 등록 ‘속도’…영천 금호읍 격납고 등 40건 대상」에 따르면, 5월 13일 문화재청은 태평양전쟁유적 가운데 문화재 등록을 선정했는데, 영천 격납고를 비롯해 부산 천성동 동굴, 부산 새바지 동굴, 부산 외양포 포대, 전남 여수 거문도 죽촌리 동굴, 경남 거제 저도 중대생활관, 전북 군산 장미동 방공호가 등록 추진을 의미하는 A등급으로 분류됐다.
- 13) 필자는 2018년과 2022년 대구, 영천, 포항, 경주 일대의 일본군 군사시설을 답사하고,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했다. 문화재청의 조사보고서(『태평양 전쟁 유적 일제조사 연구용역(대구·경북·충북지역)』, 2014.)의 기본정보를 참고하여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새로운 군사시설도 찾아낼 수 있었다.

II. 일본의 군사강점과 영천의 독립전쟁

역사에서 침략전쟁은 침략국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 철저히 준비되어 전개된다. 전쟁은 침략국의 계획뿐만 아니라 대상 국가의 군사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국사에서 국방계획 및 군사상황을 소홀히 한 시기에 전쟁을 맞이하여 국가가 위기에 직면한 역사적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큰 흐름이 의병전쟁이었다. 민중이 의병을 창의하여 의병전쟁을 수행한 사례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임진전쟁, 병자호란, 병인양요, 을미의병, 정미의병 등 다양했다. 이들 의병은 외세에 대한 저항이면서도 외세와 연결되어 부패한 정부에 대한 대항이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후기 오랜 무능과 조선왕조의 부패, 일본의 침략에 대한 동학농민전쟁이라 할 것이다.¹⁴⁾

의병은 무엇보다 정규군처럼 부대 편성과 훈련이 조직화되지 못한 군대이다. 의병장이 무관출신이면 상대적으로 의병이 조직화되었지만, 대부분 유학자들이 의병장을 맡았기 때문에 조직구성이 전통적인 부대구성이었다. 전통적인 부대구성이란 작전의 필요성 및 지역성에 적합한 형태가 아니라 오방체제에 의거하여 구성하고, 관군의 일반적인 편제를 모방한다. 이런 구성은 훈련이 면밀하지 못하여 일본군과 전투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의 일부가 의병에 참여하자 의병은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화 되고, 훈련과 무장을 개선할 수 있었다. 즉, 의병은 일반 백성이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조직편제, 훈련과 전투력, 무기체계 등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창의한 의병은 그 병력에 있어 한계가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우세한 무기와 훈련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다수가 연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학맥과 지연, 혈연에 기반한 의병장의 군사작전에 대한 의견대립과 이질성은 원활한 연합작전을 방해했다. 의병부대간의 갈등 상황과 함께 의병부대와 관군간의 갈등

14) 김우철, 「임진왜란과 의병」, 『내일을 여는 역사』 3, 2000, 서해문집, 104~105쪽.

도 상존하여 일본군에 대한 전투에 장애가 되었다.¹⁵⁾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후, 1895년 동학 농민군을 탄압하여 전봉준 등 지도자를 처형하고, 고종을 압박하여 일명을 미개척이라 하는 관제변화를 시도했다. 곧이어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다. 일본이 을미사변을 무마하기 위해 고종을 압박하여 명성황후를 서인으로 폐하자, 전국 유림이 반발하여 친일정부를 규탄하고 일본군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고자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1월 15일 고종이 먼저 단발하고 전국에 단발령을 내리자 전국적으로 의병 창 의가 이어졌다. 을미의병으로 불리는 구국의 의병은 처음 서울에서 충남으로 이어졌으며, 1896년 1월 경기, 충청, 강원도로, 2월에는 경상도, 함경도 등지로 급속하게 확대됐다.

의병전쟁은 전기, 중기, 후기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기는 갑오·을미의병운동, 중기는 을사의병운동, 후기는 정미의병운동이다.¹⁶⁾ 을미의병이 전국에서 일어났을 때 경상도에서도 안동을 비롯한 각지에서 창 의했다. 영천에서는 1896년 1월 안동의진의 창의장 권세연이 보낸 안동 격문이 영천에 도착하자 영천유림이 이에 호응하여 본 답문을 작성하고 창의했다. 현재 영천향교에는 을미의병 창의 당시 각 의병진에서 작성하여 전달한 「安東倡義檄文」, 「通諭文」, 「哀痛詔」 등 향내의 유림들에게 창 의를 독려하였던 통문 등 5건의 소중한 의병문서가 보관되어 있다.¹⁷⁾ 을미의병의 창의에 영천의 창의가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의병문서가 없었으나,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 소장된 『永川答安東義陣文』을 통해 을미 의병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영천담안동의진문』은 18행에 행별로 26자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자 및 작성일자 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은 당시가 위기의

15) 김경록, 『청일전쟁과 일제의 군사강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8. 참조.

16)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 1998;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 의병』, 선인, 2007 등.

17)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1(의병항쟁사 자료집), 독립유공자사업 기금운용위원회, 1971. 영천향교에 소장된 자료는 1건이 소개되었을 뿐이다.

시대임을 먼저 서술하고, 조선의 오랜 역사와 禮儀教化로 이름 높다고 하여 문명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밝혔다. 뒤이어 개화 이후 일본의 침략과 명성황후 시해 및 단발령으로 위기상황임을 언급하며 조선의 백성으로 치욕을 겪고자하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문서의 작성자는 선왕의 교화에 은혜를 입고, 옛 현인의 유풍을 본받고, 군신의 의리가 높고, 평소에 충의의 성대함을 밝히는 본 고장인 영남의 사람으로 안동에서 통유문이 온 것에 적극 호응하고자 함을 적었다. 이에 충의의 선비들과 함께 눈물을 떨치고 용감하게 일어나 모든 재물과 사람을 모아 적극적으로 창의하려는 기개를 보였다. 맺음말에 자신이 창의하여 죽더라도 義를 되돌린다면 여한이 없음을 의연하게 밝히고 안동의진과 함께 할 것을 천명했다.

당시 안동에서 보내온 문서는 안동통문, 안동격문 등이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안동통문은 “국가에 비상한 변고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힘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일본의 농간으로 의관이 변하고, 10월에 명성황후 시해를 천인공노할 사건을 벌이고 임금을 협박하여 갖은 농간을 부리며 심지어 머리를 깎고 옷설을 왼쪽으로 하는 등 천지가 야만으로 가득찬 시대를 한탄했다. 이어 이 나라 백성이 모두 선현의 자손으로 의리를 중시여기니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맹서하고 몸소 앞장서서 용맹을 떨치어 선왕의 法服과 부모의 遺體를 보전하자는 궤기문으로 되어 있다. 격문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이다.

안동의병진에서 보내온 통문과 격문에 호응하여 영천유림이 작성한 본 답문은 통문 및 격문의 문구와 유사한 구성 및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본 답문은 제목에서 “영천에서 안동의진에 대해 답하는 통문”이라 제시한 점, 시대상황에 대한 유사한 서술, 을미사변 및 단발령에 대한 폭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창의를 독려했던 점 등을 근거로 본 답문은 을미의병 당시 영천유림의 의병창의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영천답안동의진문』을 포함하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永陽四亂倡義錄』에 기재된 임진전쟁, 정묘호란, 병자호란, 무신난(영조대 이인좌의 난) 등 국가위기의 상황마다 영천에서 의병이

창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까지 영천의 의병운동은 정미의병으로 일어났던 1906년 山南義陣에 주목했다. 그러나 영천향교 소장 문서와 함께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 소장된 『영천답안동의진문』을 분석함으로써 영천의 유림이 1895년 을미의병으로 창의하였음과 상호 지역간에 통문과 격문을 통해 창의 및 연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천은 기존 연구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정미의병에 해당하는 산남의진의 의병활동뿐만 아니라 이미 1895~1896년 을미의병에서 영천향교를 중심으로 영천유림이 주변 지역에 통문을 돌려 창의를 주도하는 등 을미의병의 기치를 높였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향후 진행되어야 전통시대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영천의 군사전통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¹⁸⁾

경북은 전통적인 호국의 기운이 높아 국가위기상황이 초래되면 다양한 지역에서 의병을 창의하여 외적에 대항하였던 지역이다.¹⁹⁾ 경상북도의 을미의병, 정미의병 등에 관련하여 향촌지배층의 자료들이 남아있다.²⁰⁾ 기존 연구에서 을미의병은 다양한 지역에서 의병이 창의했다고 분석하였다. 을미의병의 대표적인 의병활동으로 安東義陣이 있다. 경북의 의병은 안동의진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호응하여 의병을 창의하였다. 의진은 의병의 군진을 말하는 것으로 안동의병의 다른 표현이다. 단발령의 공문이 안동부에 도착하자 안동의 유생들은 의병의 창의를 결의하고 경상도 각지에 통문을 보내 연합으로 의병활동을 권장하였다. 안동의 의병은 단발령이 선포된 1895년 11월 직후에 시작되었다. 을미사변에 이어 조선의 예적질서를 붕괴시키는 단발령이 공포되자 안동지역의 유림은 호계서원, 청성서원, 경광서원을 중심으로 의병 창의를 준비하였다. 안동의병의 창의는 다음 해로 이어져 1896년 1월, 안동지역의 유림인

18) 영천역사박물관, 『6·25 전쟁기 영천전투와 영천의 군사역사』, 하늘기획, 2020. 참조

19) 권대웅, 「을미의병기 경북 북부지역의 예천회맹」, 『민족문화논총』 14, 민족문화연구, 1993; 김희곤·권대웅, 『한말의병일기』, 국가보훈처, 2003. 참조.

20) 신진희, 「경북지역 향촌지배층과 전기의병장들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44쪽. 경북지역 향촌지배층과 의병관련 사실관계는 경북지역 유림의 각종 기록이 도움이 된다.

김도화, 권세연, 이상오, 권대일, 김홍락, 유지호 등이 본격적으로 창의하였다.²¹⁾

권세연이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안동의진을 지휘하였다. 권세연은 통문을 각지에 보내 연합 창의를 요청하며, 안동의진의 진영을 갖추고 안동부를 장악하였다. 당시 안동에서 영천을 비롯한 경북 각지에 보내온 문서는 안동통문, 안동격문 등이었던 것으로 분석되며, 안동통문은 “국가에 비상한 변고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힘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일본의 농간으로 의관이 변하고, 10월 명성황후를 시해한 천인공노할 사건을 벌이고 임금을 협박하여 갖은 농간을 부리며 심지어 머리를 깎고 옷깃을 왼쪽으로 하는 등 천지가 야만으로 가득찬 시대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 나라 백성이 모두 선현의 자손으로 의리를 중시여기니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맹서하고 몸소 앞장서서 용맹을 떨치어 선왕의 법복과 부모의 유체를 보전하자는 궤기문이다. 안동의진의 통문을 받은 경상도의 여러 고을은 이중인의 청량산의진, 박주상의 예천의진 등이 창의하여 안동의진과 연합하여 관군과 전투하였다.

의병전쟁은 을미의병에서 정미의병으로 다시 일어났다.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승리하면서 군사강점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식민화하고자 했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07년에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군대해산을 포함한 정미7조약을 체결하는 사건이었다. 국권을 침탈당하였다는 인식이 한국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대는 적지 않은 숫자가 기존 의병대열에 참여했다. 정규군대로 훈련을 받았던 대한제국의 군대가 의병에 참여하면서 의병은 보다 조직화되어 전투조직으로 변화됐다. 또한 총포를 비롯한 무장과 이를 활용하는 능력도 크게 증가했다. 고종퇴위와 정미7조약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창의를 의병을 정미의병이라 하며, 영천, 경주, 청송, 영일, 울산, 밀양 일대에서 활동한 의병부대를 산남의진이라 한다.

21) 김상기, 『한말전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99쪽.

<그림1> 제4차 산남의병을 결성한 거동사



©독립기념관

<그림2> 산남의진비



©디지털영천문화대전

산남의진은 1906년 3월에 이미 항일을 주장하며 영천, 청송, 영일 일대의 의병장 정용기, 정환직, 최세운이 창의를했다. 삼남의진은 세력을 확장하여 북진하고자 하였지만, 1907년 9월 입암전투에서 병력과 무기의 열세로 패하고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항쟁활동을 지속했다.

산남의진은 이미 1905년 11월 을사늑약의 강제체결을 계기로 전국에서 항일의병이 거세게 일어날 때 시작되었다. 을사늑약에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친서를 적어 이상설, 이준, 이위종으로 하여금 만국평화회의에서 전세계에 알리도록 하고, 전국의 한국민에게 의병결기를 촉구하는 밀지를 전달했다. 고종의 시종관이었던 정환직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장남 정용기로 하여금 경상도에서 의병을 창의하도록 했다. 이것이 산남의진의 시작이었다.

정환직으로부터 밀지를 받은 정용기는 1906년 3월에 영천에서 이한구, 정순기, 손영각 등과 함께 의병을 창의를하고 산남의진을 구성했다. 이에 청송의 홍귀섭, 서종낙, 남석구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다음 달에 의병장 정용기가 구속되자 산남의진은 크게 동요했다. 구속되었던 정용기가 같은 해 9월에 풀려나자 다음 해 4월에 다시 산남의진을 재창의하고 각지에 의병참여를 독려했지만, 적지 않은 인원이 일본군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우재용, 김성일, 조선유, 김치현,

은순택 등의 군인이 산남의진에 합류하면서 산남의진은 조직과 전술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산남의진은 고종의 퇴위를 정당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여 일본을 몰아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복진하였지만, 청송에서 일본군과 접전에서 패했다. 정규군이었던 일본군은 우세한 무기와 훈련을 바탕으로 의병을 공격하였으며, 입암전투에서 의병장 정용기, 중군장 이한구, 참모장 손영각 등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정환직이 산남의진을 수습하고자 하였으나 일본군의 추격과 수색작전으로 결국 의병장 정환직이 일본군에게 잡혀 순국하면서 실질적인 산남의진 본진의 작전은 없었다. 이후 보현산을 근거지로 최세윤이 산남의진을 재편성하였지만, 일본군의 토벌작전으로 산남의진은 支隊別 작전으로 전환했다.²²⁾ 1910년 한일병합의 시기까지 산남의진은 청송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독립군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천의 독립운동은 의병전쟁에서 시작되어 1919년 3·1독립운동, 1920년대 대중운동과 사회주의운동, 1930년대 해외 독립운동과 국내 독립활동으로 이어졌다. 영천에서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신녕면 화성동과 완전동 등지에서 전개된 신녕공립보통학교 만세운동과 화북면 입석동에서 전개된 영천읍 만세시위운동, 그리고 영천면 과천동의 만세시위운동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신녕공립보통학교 만세운동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전개한 만세시위운동으로 영천지역 만세시위운동이 확산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영천에서도 청년회를 중심으로 1920년대 대중 운동을 조직했지만 일제 경찰의 탄압으로 대부분 해산되었다. 1930년 이후의 독립운동은 국외 망명으로 명맥을 이어갔다.²³⁾

22) 『山南義陣遺史』; 『騎驢隨筆』, 鄭煥直·李韓久條.

23) 디지털영천문화대전.

<그림3> 신호리 항일독립운동가 추모비



©디지털영천문화대전

<그림4> 양항리 항일독립운동가 추모비



©디지털영천문화대전

2023년 9월 현재 국가보훈부에서는 영천 출신 독립운동가로 53명을 추서했다. 2022년 김용갑, 김정희, 박문성, 이두규, 정봉은 등 5명을 포함한 것으로 2023년 추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병운동으로 20명 3·1독립운동으로 10명, 만주·일본·중국에서 활동한 7명,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4명 등이다.²⁴⁾

Ⅲ. 영천에 주둔한 일본군과 군사시설

일본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1882년 임오군란 시기였다.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일본공사관을 중심으로 공사관수비대를 설치했다. 이후 대규모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은 1894년 청일전쟁 시기로 부산수비대, 인천병참수비대, 용산병참수비대, 경성수비대, 임진진독립지대라는 이름의 수비대였다. 청일전쟁 이후 1883년 8월 1개 중대의 보병을 남기고 병력을 철수시켰지만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다시 한반도에 일본군을 파견했다. 일부 구역을 수비하는 정도의 수비대가 아니라 전국에 병영을 건설하여 주둔지를 확보하며 국제전을 치르는 전투부대로서 한국주차군사령부를 편성했다. 1904년 3월 한국주차군사

24)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영천항일독립운동선양사업회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출신 지역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있다.

령부 훈령을 제정한 일본은 3월 23일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고 일본군의 대규모 주둔을 합법화했다. 한국주차군사령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의병탄압이었다.²⁵⁾

한국주차군수비대는 1904년 3월 후비보병 제24연대 병력 약 4,272명으로 서울, 부산, 원산에 집중 배치했다. 2개 사단 배치로 러일전쟁 종료 후인 10월 보병 제13사단과 제15사단 병력 약 18,398명이 파견되어 있었다. 일본은 1907년 3월 제13사단만 주둔시키고 제15사단을 철수시키는 대신 7월 보병 제14연대를 포함하는 1개 여단 병력을 한국에 파견했다. 1개 사단 주둔을 고수하던 일제가 갑자기 1개 여단을 증파한 것은 고종의 강제 퇴위 후의 사태를 미리 대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개 여단은 2개 연대로 편제되었는데, 고쿠라(小倉)에 사령부를 둔 보병 제12사단에서 1개 여단을 편성하여 여단사령부와 제14연대, 제47연대로 배치했다. 제1대대 본부는 용산, 제2대대 본부는 대전, 제3대대 본부는 대구였다. 부산과 울산에 제10중대, 대구 일대에 제11중대와 제12중대, 영일만에 12중대 일부가 배치되었다.²⁶⁾

대구 일대에 배치된 제11중대의 영천 활동에 대한 기록이 다수 있다. 『전투상보』에 따르면, 1907년 10월 6일 보병 제14연대 제11중대 미야하라(宮原)소대는 입암동(영천 북쪽) 부근에서 의병과 전투를 벌였다.

저녁에 대평지동에 도착하여 지형을 정찰한 후 읍의 서남단에 있는 북곽 가옥에 숙영하고 미리 번고에 대응할 준비를 했다. 과연 오후 9시 30분에 읍의 남쪽 200m 고지에서 적의 주력(약 80, 총 숫자 50)에게 일제사격을 당했다. 이어서 동서북고지에서 맹렬한 급사를 당했다. ... 적의 수괴 정관여 및 그 막료는 군도 혹은 소총을 휘두르며 맹렬하게 출격을 시도하여 피아가 뒤섞인 백병전이 되었다. 약간의 격투 후에 적의 수괴 이하 4명을 찢러 죽였다. 때는 오전 1시 52분이었으며 이어서 3채의 집에 불을 지르자 숨어 있던 적이 담장을 무너뜨리며 도주하려 했으

25) 신주백,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 운영』, 동북아역사재단, 2021, 28~65쪽 참고.

26) 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7~9쪽.

로 찢러 죽였다. 적의 사망자 13명이며, 이 사이에 읍의 북쪽 및 동쪽 고지의 적은 대부분이 도주했다. ... 추격을 중지했다. 때는 6시 20분이었다. 적의 사망자 9명이었고 전장을 정리하고 오전 1시에 출발하여 영천으로 귀환했다. 자난밤 습격해 온 적은 그 병력이 약 150명으로 화승총 70정, 모젤총 2정, 무라타총 1정을 소지했다.²⁷⁾

위 전투상보에 따르면 의병은 2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당했다. 일본군은 3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하고 노획품으로 군도, 화승통, 서류, 탄약, 화약 등이 있다고 했다. 입암전투는 10월 7~8일(음력 9월 1~2일) 있었던 전투가 있었고, 9일 새벽 일본군은 다시 영천 주둔지로 돌아갔다. 일본이 '수괴'라고 적시한 정관여는 제1대 대대장 정용기로 10월 9일 사망했다.

정용기의 아버지 정환직은 제2대 대대장으로 의병을 이끌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투상보』 보병 제14연대 제11중대의 1907년 12월 10~11일자 보고에서 확인된다. 10일 스나코토(砂本) 특무조장 이하 15명은 옥여남에서 의병 2명을 붙잡아 정환직이 옥여남 서남쪽의 고천 부근에 있다는 것을 탐지하고 11일 급히 추격하여 생포했다. '적의 수괴 정환직 포획 상황'을 보고하면서 '생포 후 심문조사'를 자세히 남겨두었다. 정환직이 의병장으로 나선 것은 아들 정관여가 의병장으로 의병전쟁을 하겠다는 것을 듣자마자 결정했고, 10월 7일 아들 정관여가 입암동에서 전사했다는 비보를 듣고 즉시 그곳으로 가서 자신의 의복을 벗어 던져주고 돌아와 이장했다고 한다. 심문조서에는 10명씩 1분대로 4개 소대로 구성된 정환직의 부대가 활동한 공적을 날짜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가지의 당부를 적은 옥중서신도 기록되어 있다.²⁸⁾

27) 김영숙 편역, 『한반도주둔일본군 사료총서② 군대 해산과 한국주차군의 독립운동 탄압』, 역사공간, 2020, 87~89쪽.

28) 김영숙 편역, 『한반도주둔일본군 사료총서② 군대 해산과 한국주차군의 독립운동 탄압』, 역사공간, 2020, 207~212쪽. '생포 후 심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고되어 있다. 1) 적장 정3품 정환직의 이력, 2) 적괴가 된 원인, 3) 활동의 상세한 기록, 4) 경성의 지기(知己), 5) 이후의 소견, 6) 정환직의 특징과 정점, 7) 옥중에서 술회, 8) 옥중 서간

정환직이 순국한 다음 해인 1908년 산남의병은 최세윤을 제3대 의병장으로 추대하여 의병전을 다시 수행하였다. 『진중일지』 1908년 3월 29일자에 의하면 의병대 약 50명이 3월 24일 홍해수비대 제11중대와 교전하여 중군장과 참모장 등 의병 12명이 사망했다고 한다.²⁹⁾

『진중일지』와 『전투상보』의 기록 이후 일본군의 의병탄압에 대한 기록은 1909년 9월 21일자 신문에서 확인되는 정도다. “순흥 지역에서 내성북쪽 30리쯤에서 의병 20명이 경상북도 영천 현병분견소 하사 1명, 현병보조원 3명, 그곳 순사 2명, 순흥군 현병분견소 상등병 2명, 현병보조원 1명과 접전, 제3일에 순흥군 북쪽 30리에서 의병 15명이 현병들과 접전” 했다.³⁰⁾

일본군이 귀환 한 후 의병탄압의 제일선에는 한국주차군사령부 휘하의 한국주차현병대가 있었다. 한국주차군은 의병전쟁에서 현병대원의 활동이 효과적임을 확인했고, 더구나 파견부대는 언젠가는 일본으로 돌아가야하므로 현실적인 대비도 필요했다. 이에 한국주차군은 1908년 5월 현병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³¹⁾

1908년 7월 25일 현재 현병대는 함흥분대, 평양분대, 경성분대, 천안분대, 대구분대, 영산포분대로 편성하고, 39개 분견소로 나누어 전국에 배치했다. 이 때 현병대는 병력 2,402명, 군마 446필을 갖추고 있었다. 대구분대는 경상남도과 경상북도를 담당하며 32~36관구로 나누어 분견소를 두고 있었다. <표1>에서 보듯이 영천이 속했던 33관구는 안동, 봉화, 군위, 의성 등이 포함됐다. 의병전쟁이 치열했던 곳이다.

29) 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21~22쪽.

30)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21일자.

31) 신주백,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 운영』, 동북아역사재단, 2021, 85쪽 참고.

<표1> 1908년 한국주차헌병대 대구분대 관할 관구 배치 지역

분대	분견소
32관구	영해, 영덕, 청하, 흥해, 포항, 영일, 영양, 자천, 청송
33관구	영천, 예안, 안동, 의성, 신녕, 대구(분대), 내성, 봉화, 군위, 순흥, 풍기, 의성
34관구	경주, 울산, 동래, 부산, 동래, 김해, 통영, 영천, 자인, 언양, 삼랑진, 밀양, 고성
35관구	문경, 상주, 김천, 성주, 함창, 낙동, 선산, 옥산, 왜관, 지례, 화양장
36관구	거창, 함천, 함양, 진주, 야로, 안의, 산청, 삼가, 단성, 하동, 사천,

출처: 朝鮮憲兵隊司令部編, 『朝鮮憲兵隊歷史』, 不二出版, 1998.

이처럼 영천에 의병전투를 위해 일본군을 배치하고 헌병대를 주둔시킨 것은 영천이 교통요지이자 군사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영천은 군사측면에서 보면 북방의 침략보다 일본의 침략에 적극 대비해야했다. 임진전쟁에서 경상좌도의 의병들이 창의정용군으로 연합하여 영천성수복전투를 과감하게 치루어 승리하였던 점에서 확인되며,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일본군에 대응하여 을미의병, 정미의병으로 산남의진을 결성하여 의병전쟁을 전개하였던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부산, 밀양, 대구로 이어져 서울로 올라가는 새로운 교통로가 확정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식민통치가 진행되면서 영천은 또 다른 전개를 맞이했다. 영천은 포항과 대구를 잇는 교통요지에 있으면서 부산과 울산을 거쳐 경주에서 대구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일제강점기 경상북도의 중심은 대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조선 남부의 군사중심지를 대구로 설정하고 일대를 담당하도록 했다. 대구에 보병 80연대를 배치하여 조선 남부를 관할하도록 한 것은 교통요지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전쟁시기 일본과 대륙을 잇는 교통로는 전쟁의 병참과 관련한 것으로 대구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었다. 대구의 군사적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인근 지역까지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어 영천, 포항, 경주 등에 병

력 주둔과 군사시설 건설이 시작되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 이후, 9월 일본은 한반도의 일본군을 조선주차군사령부로 재편성했다. 조선의 지방 치안을 헌병경찰에 넘기고 1911년부터는 남부지방에 주둔했던 소규모의 병력을 중대나 대대 단위로 결집시켜 병력배치원칙을 바꾸었다. 또한 북부수비관구의 중심인 용산과 평양에 보병 1개 연대를 배치하여 이북지역으로 병력을 집중시켰다. 남부수비관구에 있던 조선주차군 병영이 완성되자 1917년 1월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보병 제80연대를 배치했다.³²⁾

대구 제80연대의 부대 활동이 영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 1925년 2월 행군연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천에 숙박을 하고, 재향군인과 청년단회원들 등 약 1천명의 연습견학단을 조직하여 연습 후 학교 운동장에서 새로운 무기를 시현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1933년 5월 19~20일 대구 보병 80연대는 용산야포병대대와 공병대대 연합으로 연합연습을 거행하기로 하고, 영천에서 공병대 단독의 폭파연습을 계획하기도 한다. 1936년 9월 13일에도 대구 보병 제80연대 제2대대 4백명이 영천에서 ‘만주사변 4주년 기념일’ 행사를 한 적이 있다.³³⁾

1931년 만주를 침략한 일본은 일부의 군 재편을 시행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1945년 2월이었다. 일본은 미군과 마지막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일본군을 재편하여 조선군관구와 제17방면군으로 구분하고

32) 일본군의 이러한 배치는 한반도에 일본이 상주사단을 두고 1918년 조선군사령부를 창설한 이후 진행된 것이었다. 이전 일본군은 주차군을 조선에 배치했는데, 이때 ‘주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대하는 것으로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은 본토에 주둔지가 있고 책임 수비관구가 있는 상태에서 파견된 부대였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견부대는 본국의 주둔지로 귀대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부대를 ‘주차군’이라고 부르고, 특정 지역에서 계속 주둔하면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상주부대를 ‘주둔군’이라 불렀다.(신주백,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 운영』, 동북아역사재단, 2021, 61쪽. 참고)

33) 『부산일보』, 1925년 2월 3일자, 「영천 연대 연습(대구)」; 1932년 5월 10일자, 「대구 연병장을 중심으로 보병, 포병, 공병 연합연습 ; 19, 20 양일의 장관은 불만할 것, 영천지(靈泉池)에서 폭파실연도 행한다?」; 1936년 9월 15일자, 「대구 80연대의 정예 4백명이 영천으로 오다, 분회 중심으로 환영준비」

역할과 담임구역을 설정했다.

일본의 주둔지와 전쟁관련 시설의 흔적은 현재도 전국에 남아있다. 경북지역에는 대구, 포항, 영천, 경주 일대에 일본군 주둔지가 확인된다. 대구는 조선군사령부 육군 보병 제80연대 본부를 두었던 곳으로, 경상 남북도를 관할하는 병력의 중심이었다. 이와 관련한 시설들이 현재 캠프 헨리(Camp Henry)에 남아있다.³⁴⁾ 포항과 영천은 일본 육군 비행장과 해군 비행장을 두고 각 각의 병력을 운영했다. 1945년 일본군은 완전히 편제를 바꾸는데, 이때 대구에 작전부대인 제120사단의 본부를 두고 각 지에 부대를 편성했다. 포항, 영천, 경주 일대에 배치한 병력은 동해 연안의 작전을 위한 것이었다.

대구에는 일본 육군 보병 제80연대 주둔지와 동촌비행장 관련 군사시설이 남아있다.³⁵⁾ 제80연대 주둔지는 현재 캠프헨리로 사용되고 있어 확인은 쉽지 않고, 남구 대명동에 위치했던 보병 제80연대 훈련장이 있었다고 하나 도시화로 흔적을 찾기 어렵다. 동촌비행장은 1937년 개장한 곳으로 현재 대구공항이자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주둔지이다. 비행장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되는 동구 봉무동과 도동 일대의 동굴이 다수 남아 있다.

동해안 방어를 위한 주요 지점은 포항과 경주였다. 포항에는 일본 해군이 건설한 영일항공기지가 있다. 1943년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일항공기지는 현재 오천비행장으로 불리며 포항공항이자 해병대 주둔지로 사용되고 있다. 포항에 일본 육군 전투부대가 배치된 것은 1945년이 었다. 만주에서 편성된 일본 육군 보병 제120사단은 대구에 본부를 두고 포항, 울산, 부산, 사천과 고성에 병력을 분산 배치했다. 포항에는 1개 대대가 배치되는데, 이와 관련한 일본군 군사시설은 남구 오천읍 세계리와 광명리 동굴, 장기면 정천리 콘크리트 지하시설로 추정된다.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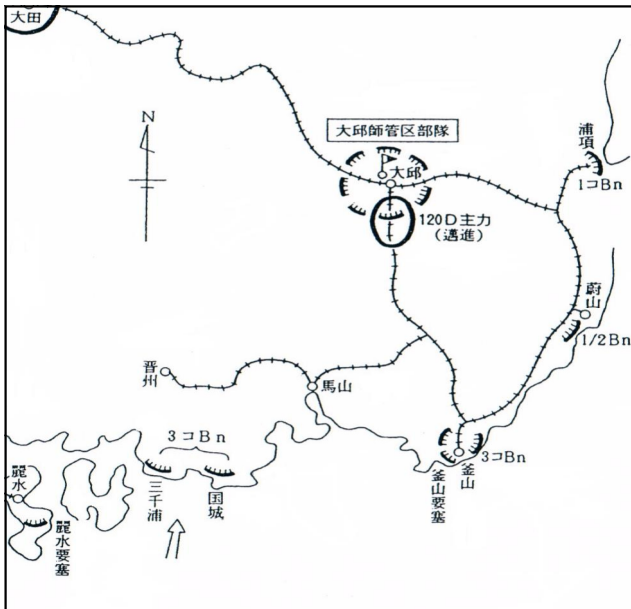
34) 문화재청, 『2006 군부대 문화재 조사 보고서-주한미군기지-』, 2006, 265~292쪽.


35) 대구는 일본군의 전쟁과 군사정책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군사도로망과 항공기지 확대를 추진했다.(김경남,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대구의 시가지계획과 군사기지화 정책」, 『영남학』 7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주시 감포읍에는 해안이 잘 보이는 언덕 중반부에 콘크리트 건축물이 남아있다.³⁶⁾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에 접어든 1945년 일본은 미군이 한반도와 일본에 상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상륙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을 시행했다. 일본은 경상남북도에는 전투부대로 제120사단을 긴급 주둔시켰다. 일본군 제120사단의 주력은 대구에 두고, 포항에 1개 대대, 울산에 1/2개 대대, 부산에 3개 대대, 고성과 삼천포에 3개 대대를 파견했다.³⁷⁾ 이와 관련해서는 <그림5>와 같다.

<그림5> 대구사관구 병력 배치도(1945년 5월 현재)



※ D 사단 / Bn 대대 /  축성진지

출처: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重砲兵聯隊史-馬山·永興灣·羅津·麗水』, 千創, 1999, 40쪽.

36) 문화재청, 『태평양 전쟁 유적 일제조사 연구용역(대구·경북·충북지역)』, 2014, 참고.

37)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177쪽.

1945년 9월 일본군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천은 대구사관구에 포함되는데, 그 현황은 <표2>와 같다. 대구사관구는 1945년 2월 조선 군관구를 사관구와 방면군으로 개편하면서 만들어진 체계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일부를 포함하는 구역이다.

<표2> 대구사관구에 배치된 병력 현황(1945년 9월 현재)

		인원	군마	자동차
대구	대구사관구부대(보2보결)	1,892	185	36
	대구육군병원	88		
	대구병사부	56		
	대구지구사령부	14		
	독립치중병제72중대	307	250	
	독립치중병제74중대	316	250	
	제62병참지구대본부	160	469	
	156경비대대	550		
	320사단 보병 363연대	2,095	49	
	320사단 야전병원	203	48	
직지사	제12야전보충마창 일부	32	25	
경주	157경비대대	548		
김천	158경비대대	567		
대구사관구	헌병부대	150		
대구 및 부근	항공부대	6,502		
대구사관구		13,480	1,280	36

출처: 陸軍省, 『朝鮮軍人馬自動車概數表』,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20868300).

대구사관구에는 총 1만 3,480명의 인원이 주둔하고 있었다.³⁸⁾ 모두 일본 육군 병력수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한참이던 시기 영천은 어떤 군사적 역할과 군대를 파견했을까. 다른 자료와 교차하여 살펴보면 헌병대와 고사포부대, 항공부대가 배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8) 대구사관구는 경상남북도를 관할하는데, 부산요새사관구에서 관할하는 경상남도 연안지역을 제외한 구역이다. (김윤미, 「아시아태평양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항도부산』44,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22. 참고)

첫 번째, 영천에 배치된 항공부대이다. 영천시 금호읍에는 ‘영천비행장 격납고’로 알려진 시설이 남아있다. 금호강이 흐르고 유봉산 자락에 업체호가 만들어졌다.³⁹⁾ 3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구역이 신월리, 두 번째 구역이 봉죽리, 세 번째 구역이 황정리이다. 대략 3m가량 높이에 너비는 15m, 길이는 15m가량 된다. 모두 개인 소유지에 설립된 것이라 시설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신월리에는 3개의 업체호 흔적이 있다. 한 곳은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몇 년전 허물어버린 것으로 확인되고, 2개는 무너진 상태로 풀이 덮여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은 철근이 부족하여 콘크리트와 자갈, 모래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봉죽리에 있는 업체호는 금호강 바로 옆에 위치한다. 주민의 이야기에 따르면 3개가 남아있었는데, 하나는 공장지대로 편입되면서 사라졌고, 하나는 밭을 활용하기 위해 무너뜨렸다고 한다. 한 곳은 마을 방송시설이 시설물 위에 달려있어 생경한 모습을 보여주며 밭 한가운데 있었다. 주인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봉죽리 저수지 근처에도 업체호가 있다. 뒷부분이 밭파로 없어진 1기가 남아있고, 옆으로 주택이 있다.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 따르면 저수지 한가운데 1기가 있었던 것을 저수지 조성을 위해 폭파하고, 잔해는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39) 격납고는 비행기를 임시로 보관하면서 수리하는 장소로, 이 글에서 소개하는 비행장 관련 시설은 군사적 용어와 사용처를 감안하여 업체 혹은 업체호라고 명명하였다.



<그림6> 금호비행장 업체호 위치도
(네이버지도) (© 2022.11.5. 김윤미)



<그림7> 업체호1(신월리)
(© 2022.11.5. 김윤미)



<그림8> 업체호2(봉죽리 금호강 옆)
(© 2022.11.5. 김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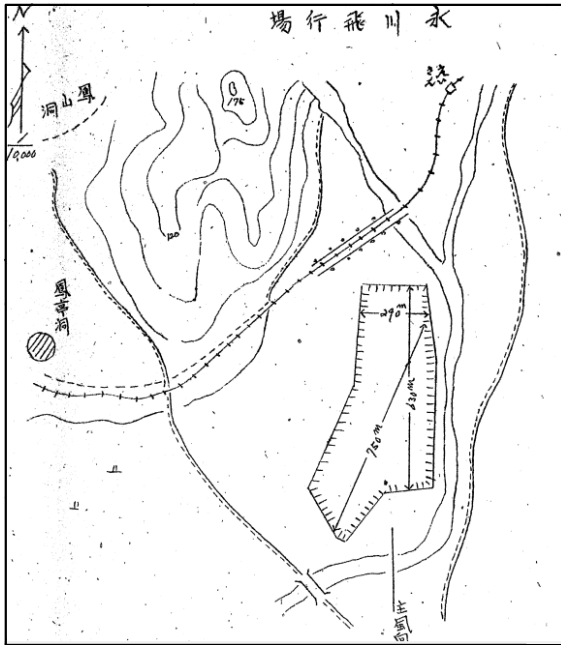


<그림9> 업체호3(황정리 저수지)
(© 2022.11.5. 김윤미)

1939년 비행장 현황자료를 보면 영천에 있었던 비행장을 ‘영천비행장’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대구에서 영천으로 연결된 철도와 금호강 줄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그림10>과 같이 영천비행장은 남북방향으로 길이 630m, 폭 290m의 활주로가 그려져 있다. 다른 지역의 비행장에는 면적, 지표상황, 주변상황, 기후, 격납시설, 거주시설, 교통연락망, 병영 외 주택, 기타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영천비행장은 서술이 없다. 아마 비행장 건설이 계획 단계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1945년 9월 자료에 영천비행장은 소재지가 ‘금호’로 되어 있어 이후 ‘금

호비행장'이라고도 불렀던 것으로 추정되며 활주로 길이는 1500m로 기록되어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10여개 이상의 업체호가 있었다고 한다.

<그림10> 1939년 영천비행장 도면



출처: 陸軍省, 「飛行場記録 朝鮮の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6120581700)

1944년 중반부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에 본격적으로 미군 항공기가 모습을 드러냈다.⁴⁰⁾ 초기에는 정찰 목적의 비행이 많았으나,

40) 일본군의 항공정책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건, 「전시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防空 조직과 활동」, 『승실사학』 27, 승실사학회, 2011; 「アジア太平洋戦争期の朝鮮半島における日本軍の航空基地建設と運用」, 『軍事史學』 58, 軍事史學會, 2022;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한반도 내 항공기지 건설과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104, 한국근현대사학회, 2023; 「한반도 주둔 일본 해군의 제주 항공기지 운용과 특징」, 『동국사학』 76,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박란, 「일제의

10월 말부터는 실질적인 공습피해가 발생했다. 1945년 4월 8일 <결호 작전 준비요강>에 따라 항공부대는 상륙하는 적 수송선단 공격, 적의 공습에 대한 작전 준비, 항공기지 강화, 비닉비행장 건설 등 전력 보전과 축적을 시작했다. 이때 비행장 확장이 시급히 진행되고, 은닉을 위해 엄체호도 전국에 건설했다. 영천비행장도 1939년 계획보다 규모가 확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엄체호도 곳곳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비행장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면서 항공대를 파견했다. 이전 한반도에는 항공 전투부대는 없었다. 조선의 비행장은 연습용 혹은 중간 기착지로 역할을 하는 정도였다. 1945년 조선도 전쟁터로 재편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결호작전에 따른 항공작전지도요강」에 따르면 6월까지 항공작전 준비를 완료하도록 했다. 1945년 5월 최소한의 병력만 만주에 남겨두고, 제5항공군은 조선으로 이동했다.⁴¹⁾ 1945년 6월 현재 조선의 육군비행장과 제5항공군의 배치현황을 보면 영천비행장은 미완성으로 신설 중에 있다. 제주도, 담양, 진주, 밀양, 해주도 신설 중이었다.⁴²⁾

제5항공군의 한반도 내 작전 현황은 「본토항공작전기록 부록 제6 제5항공군결호작전계획의 대강」에서 확인된다. 지도 방침에서 특히 상황에 따라 일부의 정예 특공대로 기습작전 실시를 강조하는데, 이는 각 항공부대별로 별도로 구성된 특공부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45년 5월 해상과 항공의 모든 전력을 특공공격에 투입하라는 본토 결전 기본 방침에 따라 한반도 남쪽을 중심으로 조선에 주둔하는 항공부대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비행장 추가 건설이 긴급하게 시행되었다.⁴³⁾

미군의 상륙이 가시화되면서 일본군 항공기지는 점차 자살특공을 염

조선 항공정책과 항공기지 건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김경남, 「전시체제기 일본의 항공정책 변화와 조선 내 항공기지의 건설」, 『역사와 경계』124, 부산경남사학회, 2022.

41)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82, 大本營陸軍部(10)』, 朝雲新聞社, 1975, 241~242쪽.

42)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19, 本土防空作戰』, 朝雲新聞社, 1971, 538쪽.

43) 박관, 「일제의 조선 항공정책과 항공기지 건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61~65쪽.

두에 둔 특공기지로 변모했고, 이에 따라 일본군이 보유하고 있던 비행기 중 500기를 특공기로 편성하는 한편 이들을 은닉하고 보호할 업체 구축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당시 구축 계획에 따른 업체는 200기에 달했으며 이중 적지 않은 수가 실제 건설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⁴⁴⁾

비행장은 경의선·경부선이 위치한 지역에 편성되어 있고, 울산·해운대·사천·목포·군산 등 조선 남부 지역의 중요 수송항에 밀집해 있다. 이것은 철도와 항만, 그리고 대한해협을 방어하기 위한 항공부대의 배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에 구축한 비행장은 1945년 초순경에는 일본항공부대의 대미작전을 위한 후방기동비행장, 또는 일본과 대륙 연락을 위한 항공로용 비행장으로 사용되었지만, 작전비행장으로서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⁴⁵⁾ 해군비행장은 김해 낙동강 하구, 포항 영일만에 위치해 있었다.⁴⁶⁾

영천비행장은 소재지가 ‘琴湖’였다. 영천에 배치된 항공부대는 자료에 따르면 제223비행장대대와 제10야전항공보급소가 확인된다. 1945년 8월 31일 제5항공군사령부에서 작성한 ‘주요병기현황표’를 보면 용산, 김포, 춘천, 수원, 대전, 군산, 목포, 담양, 대구, 금호, 밀양, 울산, 해운대, 사천, 진주 비행장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영천의 일본군 부대 배치와 역할의 특징 두 번째는 고사포부대다. 고사포부대는 하늘에서 공격하는 미군의 항공기를 막고자 했던 땅 위의 부대였다. <그림11>에 따르면 영천은 포항과 대구를 잇는 교통지점이자 안동을 연결하는 곳에 위치했다. 미군의 비행기 공격이 예상되는 지점에 防空부대인 고사포 부대를 배치했다. 철도를 따라 인근 포항, 대구, 삼랑진에도 고사포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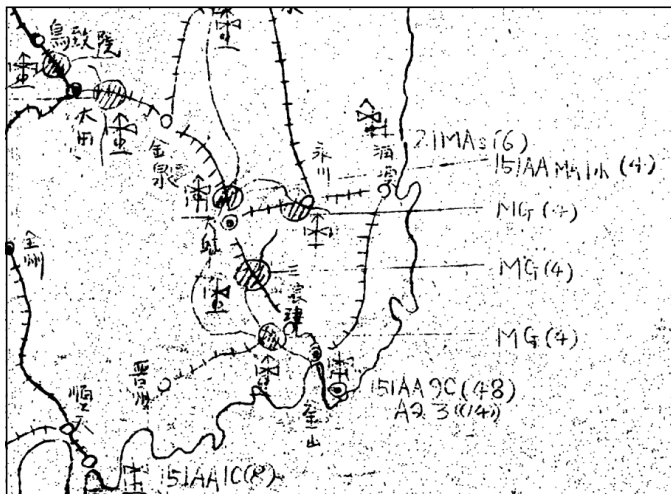
44) 조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한반도 내 항공기지 건설과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104, 한국근현대사학회, 2023, 118~119쪽.

45)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19, 本土防空作戰』, 朝雲新聞社, 1971, 576쪽.

46) 第2復員局, 「釜山航空基地」, 『鎮海警備府 引渡目録』(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8010531900).

47) 陸軍省,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1300).

<그림11> 고사부대 배치도(1945년 8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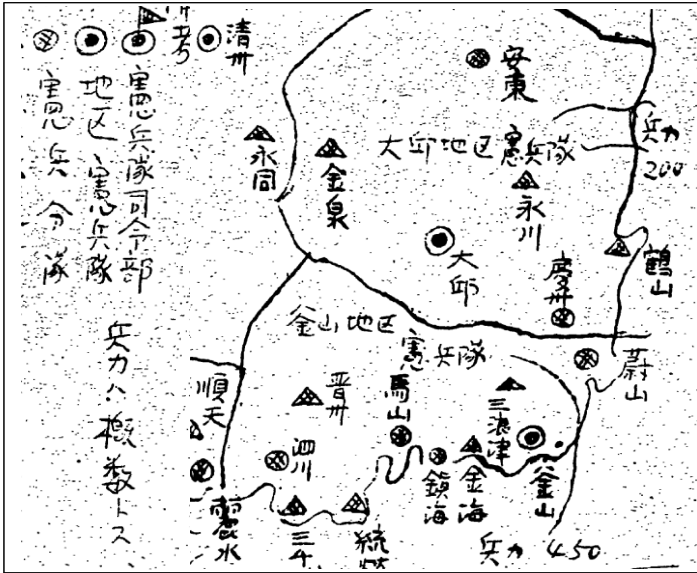


✕ 고사포비행대 본부
 ✕ 고사포진지
 ○ 고사기관포진지
 △ 고사기관총진지

출처: 陸軍省,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1300).

영천의 일본군 부대 배치와 역할의 특징 세 번째는 헌병대다. 1945년 8월 당시 헌병대사령부는 경성에 있었다. 각 지역별로는 지구헌병대를 두고 그 아래 헌병분대를 두고록 했다. <그림12>에 따르면 경상북도 지역은 '대구지구헌병대'로 구분하고 200여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안동, 경주, 김천, 영천, 학산(포항)에 헌병대가 배치됐다. 이 시기 헌병대의 배치는 일본군의 배치와 연결되어 있었다. 영천에 항공부대 등 일본군이 배치되면서 관리와 통제가 필요했다.

<그림12> 헌병대 배치도(1945년 8월 현재)



출처: 陸軍省, 『在朝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1300).

IV. 맺음말

한국근대사에서 일제의 군사강점 및 일제강점기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전개에 큰 오점이자 아픔이었다. 일제의 군사강점은 가장 정치적인 국가행위로 전쟁이란 침략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한국인의 대응은 의병전쟁에서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 독립전쟁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한국사의 현상이 아니라 오랜 한국사의 군사적 전통으로 이어져왔다. 그 선상에서 영천을 살펴보았다.

영천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의병전쟁을 일으켰던 곳이다. 정규 군대가 국가방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림과 백성이 구국의 일념으

로 창의하여 국왕을 호위하고 외세를 몰아내고자 한 것이 의병전쟁이었다. 영천을 중심으로 경북의 여러 지역에서 창의한 의병이 연합의진을 결성하여 의병전쟁을 수행했다. 정규군이든 의병이든 연합부대는 그 지휘와 지향점에서 매우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신분별 이질성을 극복하여 의병전쟁의 군사전통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둔다. 또한 의병전쟁은 이후 3·1독립운동, 일본과 만주 등 국내외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 되새기게 한다.

일본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1882년 임오군란 시기였다.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일본공사관을 중심으로 공사관수비대를 설치했다. 러일전쟁 종료 후 보병 제13사단과 제15사단 병력 약 18,398명을 배치한 일본은 1907년 3월 제13사단만 주둔시키고 제15사단을 철수시켰다. 7월 보병 제14연대를 포함하는 1개 여단 병력을 한국에 파견하여 경남과 전남지역의 의병활동 지역에 배치했다. 대구를 중심으로 배치된 제11중대는 산남의진에서 정용기, 정환직, 최세윤으로 이어지는 의병과 전투를 했다. 1909년 일본군 병력을 대부분 일본으로 복귀시킨 일본은 의병탄압의 임무를 헌병대로 집중시켰다.

한편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 영천은 일본군의 주둔지가 되었다. 경상남도과 경상북도의 군사통치를 담당했던 부대는 대구에 주둔했던 보병 80연대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에 접어든 1945년 일본은 미군이 한반도와 일본에 상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상륙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을 시행했다. 경상남북도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일본군 제120사단을 긴급 배치했다. 1945년 8월 현재 대구사관구에는 총 1만 3,480명의 일본 육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때 영천에는 항공부대와 고사포부대, 그리고 헌병대가 배치되었다.

영천에서 의병전쟁이 일어나고, 일본군이 주둔했던 것은 경북의 중요한 교통요지이자 요충지라는 지리적 조건이 반영된 결과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대구라는 신도시를 만들어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교통, 행정중심지를 옮겨갔다. 이 때문에 영천은 상대적으로 군사적 중요도가

낮아졌지만,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동안 영천은 다시 한 번 교통의 중심이자 군사적 거점으로 역할이 부각되었다.

※ 이 논문은 2023년 08월 1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8월 31일부터 09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9월 1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강길원, 「의병운동연구」, 『한민족독립운동사』 12, 국사편찬위원회, 1993.
- 강인구, 「러시아자료로 본 주러한국공사관과 이범진」,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1.
- 국립일제강계동원역사관, 『강계동원의 역사와 현장: 서부경남편』, 2017.
- 권대웅, 「을미의병기 경북 북부지역의 예천회맹」, 『민족문화논총』 14, 민족문화연구, 1993.
- 김경남, 「아시아태평양전쟁기 대구의 시가지계획과 군사기지화 정책」, 『영남학』 7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 김경남, 「전시체제기 일본의 항공정책 변화와 조선 내 항공기지의 건설」, 『역사와 경계』 124, 부산경남사학회, 2022.
- 김경록,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군사』 114,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20.
- 김경록, 『청일전쟁과 일제의 군사강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8.
- 김상규, 「조선 주둔 일본군의 대외 침략과 군사동원」,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22.
- 김상기 편저, 『보병제14연대 진중일지』 I~III, 토지주택박물관, 2010.
- 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 김상기, 「조선말 의병전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의병전쟁연구』 상, 지식산업사, 1990.
- 김상기, 『한국독립운동의 역사9-한말전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상기, 『한말전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김영숙 편역, 『군대 해산과 한국주차군의 독립운동 탄압』, 역사공간, 2020.
- 김우철, 「임진왜란과 의병」, 『내일을 여는 역사』 3, 서해문집, 2000.
- 김윤미, 「아시아태평양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항도부산』 44,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22.
- 김윤미, 「일제시기 일본군의 대륙침략 전쟁과 부산의 군사기지화」,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정명, 『朝鮮駐劄軍歷史』, 여강출판사, 1986.
- 김학수, 「17세기 초반 永川儒林의 學脈과 張顯光의 臨臯書院 祭享論爭」, 『조선시대 사학보』 35, 조선시대사학회, 2005.
- 김희곤·권대웅, 『한말의병일기』, 국가보훈처, 2003.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 1,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 문화재청, 『태평양 전쟁 유적 일제조사 연구용역(대구·경북·충북지역)』, 2014.
- 문화재청, 『태평양 전쟁유적(부산, 경남, 전남 지역) 일제조사 연구용역』, 2013.
- 박란, 「일제의 조선 항공정책과 항공기지 건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 1998
- 배용일, 「山南義眞陳考-정환직·정용기 부자 의병장 활동을 중심으로」, 『포항실업 전문대 논문집』 6, 포항전문대학, 1982.
- 山南義陣遺史刊行委員會, 『山南義陣遺史』, 1970.
- 서민교, 「만주사변기 조선주둔 일본군의 역할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2.
- 손경희, 「일제시기 경상북도 영천군의 금호수리조합과 일본인 농업경영」, 『대구사학』 135, 대구사학회, 2019.
- 신주백, 『일본군의 한반도 침략과 일본의 제국 운영』, 동북아역사재단, 2021.
- 신진희, 「경북지역 향촌지배층과 전기의병장들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80, 한국근현대사학회, 2017.
-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경북독립운동사 I~V』, 경상북도, 2013.
- 영천역사박물관, 『6·25 전쟁기 영천전투와 영천의 군사역사』, 하늘기획, 2020.
-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 의병』, 선인, 2007.
- 유한철, 「일제 한국주차군의 한국침략 과정과 조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1992.
- 이미란, 「8세기 후반 동아시아 役制 변화를 통해 본 영천청제비 정원명의 法功夫」, 『한국고대사연구』 95, 한국고대사학회, 2019
- 이성우, 「1920년대 이육사의 국내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 이성우, 「滄旅 張鎮弘의 생애와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의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 조건, 「アジア太平洋戦争期の朝鮮半島にいける日本軍の航空基地建設と運用」, 『軍事史學』58, 軍事史學會, 2022.
- 조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한반도 내 항공기지 건설과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104, 한국근현대사학회, 2023.
- 조건, 「전시체제기 조선 주둔 일본군의 防空 조직과 활동」, 『승실사학』27, 승실사학회, 2011.
- 조건, 「한반도 주둔 일본 해군의 제주항공기지 운용과 특징」, 『동국사학』 76,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 조동걸, 「민족군사의 원류의식」, 『군사』 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2.
-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13.
-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 陸軍省, 「飛行場記録 朝鮮の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6120581700)
- 陸軍省, 『在南鮮日本軍部隊概況報告』,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13070041300).
- 第2復員局, 『鎮海警備府 引渡目録』, 1945(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C08010531900).
- 宮田節子, 『朝鮮軍概要史』, 不二出版, 1989.
-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19, 本土防空作戰』, 朝雲新聞社, 1971.
- 防衛廳防衛研修所 戰史室, 『戰史叢書82, 大本營陸軍部(10)』, 朝雲新聞社, 1975.
- 朝鮮所在重砲兵聯隊史編纂委員會, 『重砲兵聯隊史-馬山·永興灣羅津麗水』, 千創, 1999.
- 朝鮮憲兵隊司令部編, 『朝鮮憲兵隊歷史』, 不二出版, 1998.
- 『디지털영천문화대전』
-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21일자.
- 『부산일보』, 1925년 2월 3일자, 「영천 연대 연습(대구)」.
- 『부산일보』, 1932년 5월 10일자, 「대구연병장을 중심으로 보병, 포병, 공병 연합연습」.
- 『부산일보』, 1936년 9월 15일자, 「대구 80연대의 정예 4백명이 영천으로 오다, 분회 중심으로 환영준비」.
- 『영남일보』 2018년 5월 14일자, 「태평양전쟁 유적 문화재 등록 ‘속도’…영천 금호읍 격납고 등 40건 대상」.

The Independence War Tradition and Military Facilities in Yeongcheon(永川)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Yun-mi

This article revisits the modern history of Yeongcheon from a war and military perspective. The tradition of independence is the tradition of the War of Independence when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military history beyond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From the modern era to the present, military activities have expanded from the War of Militancy to the War of Independence, rather than a comprehensive movement history in terms of the history of the national army. In addition, wars leave military traces in the region, including various military faciliti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Yeongcheon, Gyeongbuk Province.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mercenary war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Yeongcheon. Yeongcheon is connected to the rest of Gyeongbuk by a transportation network. Therefore, Yeongcheon was able to join forces with other regions to launch the Eulmi's Disease and Jeongmi's Disease. This led to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the Japanese, Manchurian, and Chinese wars of independence at home and abroad.

Next, we reviewed Japanese military activ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Japan dispatched garrisons and gendarmes to Yeongcheon to stop the activities of the samurai. Japan then stationed two divisions of the Japanese army on the Korean Peninsula. Yeongcheon came

under the influence of the 80th Japanese Army Infantry Regiment, headquartered in Daegu. During the Asia-Pacific War, Yeongcheon built Yeongcheon Airfield and stationed aviation units. High-powered artillery was installed at key points and troops were organized. Japanese troops were stationed and gendarmes were in charge of policing the area. The military facilities remain to this day.

keywords :

Independence Movement, The Righteous Army War, The Righteous Army Movement, Eulmi Righteous Army, Jeongmi Righteous Army, Daegu, Gyeongsangbuk-do, Yeongcheon Airport, Japanese Military Police, Japanese Army in Korea. Asia-Pacific War.

